

문의	특허심사1국 정밀화학심사과	과장 반응병 042-481-5444 사무관 김란 042-481-83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11월 12일(월)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 『탄소산업과 IP 심포지엄』 개최

- 탄소, 미래신소재로의 지식재산권 확보 중요성 갈수록 커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탄소산업과 I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탄소학회(www.carbon.or.kr)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신산업 창출과 혁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소재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탄소소재의 산업동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미래소재와 특허 ▲지식재산 활용 전략지원 사업 ▲탄소나노튜브(CNT) 개발과 상용화 사례 ▲기술사업화 사례 ▲무역분쟁 및 소송사례 등이며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등은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사물 인터넷, 로봇,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기술 분야를 이끄는 핵심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소재는 개발이 어렵지만 성공할 경우 장기간의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하여 이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탄소산업은 고부가 가치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 세계 시장규모는 2조7,025억불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2,168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는 탄소소재 수요 중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4차 산업 기술분야의 핵심소재로서 탄소소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00대 국정과제'의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에 탄소산업이 포함됐으며 이를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 C-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 참조

특허청 반응병 정밀화학심사과장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소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탄소소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탄소산업과 IP 심포지엄 일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1국 정밀화학심사과 김란 사무관(☎ 042-481-83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탄소산업과 IP 심포지엄 일정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11. 16.(금), 10:00 ~ 12: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

□ 프로그램

시간	발표주제	소 속
10:00~10:20	미래소재와 특허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반용병 과장
10:20~10:40	지식재산 활용 전략지원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민봉기 교육연구본부장
10:40~11:00	소재분야 기술이전 전략	한국특허정보원 송영훈 파트장
11:00~11:20	CNT 개발과 상용화 사례	LG 화학 김성진 책임연구원
11:20~11:40	기술사업화 사례	한국화학연구원 최신혜 기술사업화 실장
11:40~12:00	무역분쟁 및 소송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남 사무관
12:00~	특허제도 및 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 한국탄소학회 : 탄소재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학회임. 1999년 창립되었고
2017년 현재 회원수 1550명임

* 특허청/한국탄소학회 공동주최

* 발표주제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